

---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午後 2時

---

被監査機關 文化觀光局

---

日時 1995年11月24日(金) 午後 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

(14時 34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順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文化觀光局에 대한 1995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年度 行政事務監査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는 文化觀光局에 대한 監査는 95年 한해 동안 수행한 施策들에 대해 千 百萬 市民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장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각종 議案審査와 豫算審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議會의 行政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95年度 文化觀光局이 수행한 각종 事業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推進方向 또는 代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行政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監査의 目的이 있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은 이러한 行政事務監査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監査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7條 第4의 規定에 의거, 行政事務監査時 正當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執行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關係公務員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宣誓)

○委員長 安順德; 다음은 文化觀光局長께서 먼저 幹部紹介를 하신 후 95年度 전반에 걸친 業務推進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禹奭; 文化觀光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文化課長 李老根, 文化財課長 柳時源, 觀光課長 白亨奐)

國際交流課長은 지금 현재 市長님의 뉴사우스웨일즈 巡訪計劃 때문에 선발대로 미리 가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第13回 市議會 定期會 行政事務監査에 따른 文化觀光局所管의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答辯 순서입니다. 먼저 원만한 監査 進行을 위하여 一括質疑 後 執行部の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하여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으로 監査를 進行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補充質疑를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一括質疑 後 잠시 停會한 다음 一括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의 1995年度業務推進現況 報告에 대하여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浣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議事進行發言 하십시오.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에 각종 審議委員會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審議委員會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海外駐在官이 있는데 海外駐在官이 業務報告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海外駐在官에 대한 95年度 業務報告를 報告해 주시고, 자원봉사관광가이드 활용을 한다고 해서 242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에 대한 實績, 業務日誌가 있다면 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相勳 委員; 趙相勳 委員입니다.

저 역시 자료 요구인데요, 國際映畫祭 起案 서류철이 있으면 서류철을 갖다 주십시오. 사본을 하시지 말고 복사하기 귀찮으니까 원본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李善宰 委員; 관광안내소에서 배부하는 弘報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金乙東 委員; 金乙東 委員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定都600年 紀念公演으로 여성국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국극을 신청을 했던 신청대상 단체와 그리고 審議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회의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雲峴宮 補修에 대해서 처음 시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너무 자료가 방대하면 한번 보기만 할 것이니까 그대로 갖다 주시든지, 그렇게 방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복사를 하나 해 주면 고맙겠고요, 두 가지 중에 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順德; 鄭韓植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本委員은 一括質疑를 한 다음에 執行部의 一括答辯을 듣고 補充質疑에서 좀더 심도 있는 質疑를 하고 一括質疑에서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質疑를 하겠습니다.

서울市 文化賞에 관한 質疑입니다.

첫번째, 審査委員의 委囑基準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答辯을 해 주시고, 委囑期間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사가 끝나면 解囑이 된다든지 委囑期間이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委員會 委員數가 몇 名입니까?

네번째, 1995年度 서울市文化賞 審査委員들의 명단과 그 주요경력 등을 포함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박순영 외 9인이 금년에 受賞을 했죠. 그 분들의 功績證明書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受賞者 選定方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質問입니다.

95年度 베세토협력에 관한 합의 중에서 95年度에 실시한 事業은 고작 청소년배구 한 번 하고 한 가지는 다른 法人體에서, 社團法人 국미회에서 한 베세토 미술제 그 두 件밖에 없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報告書에 의하면 2件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배구 정도라면 굳이 베세토사업에서 따로 추진 안 해도 수 많은 기회가 있을텐데, 이런 事業 말고 좀 더 文化的이고 藝術的인 事業計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質疑를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정보센터 建立計劃에 관한 質問입니다. 최초의 착안단계가 언제였습니까? 말하자면 趙淳 市長 就任前이었나, 아니면 趙淳 市長 就任後였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최초의 착안자가 누구인가, 어떤 특정인이 없다면 어떤 部署인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옥상옥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굳이 財團法人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지금 鄭韓植 委員께서 質疑하신 것 중에서 각 委員님들도 그런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서울市에 각종

委員會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委員會에 어떤 委員會가 있는지 그것을 일괄, 委員會名과 委員會 委囑事項과 거기에 대한 어떤 規定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하셔서 任期라든가 組織이라든가 아니면 審査基準, 規約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모아서 委員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보고 싶습니다. 다른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孫馥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어제 世宗文化會館 監査하면서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文化觀光局 역시 世界 4大 都市중의 하나인 천백만 서울市民의 文化福祉 또는 首都 서울을 世界에 떨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文化觀光局的 내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地方化 時代나 또는 國際化, 世界化 時代에 걸맞는 하나의 文化行政을 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藝術團體 운영이나 또는 文化藝術을 창달하는 그러한 世宗文化會館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專門家다운 그러한 기획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어제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역시 文化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一般文化와 文化財가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물론 行政職 公務員들이 다 수준 높은 양질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專門的인 그러한 기획파트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業務報告 내용 중에 있는 아주 방대한 이러한 事業들을 적기에 아주 효과 있게 잘 집행하신다면 진짜 世界에 걸맞는 그러한 國際都市로서의 면모도 아마 충분히 갖추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서울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事業構想도 갖고 계십니다만, 이 文化企劃을 여러 다방면에 文化字가 다 들어가는데 어떠한 文化行事를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의 기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 또는 우리가 잊을만한 것, 이런 것 때때로 착안해서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文化의 나라로서는 아직까지 世界的으로 미치지 못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建設이나 또는 道路나 이런 것들은 設計士가 설계를 해서 거기의 豫算에 따른 하나의 工事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文化라는 것은 有無型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는 지적능력이 충분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데 文化觀光局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외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部署로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質問코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業務報告 때 몇 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報告를 해 주셨는데 물론 觀光都市로서의 면모 또는 外國人 시티투어에 대한, 언론에 기사가 난 것도 있고 또 그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사항은 천백만 우리 首都 市民이 우리 歷史를 알자 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론 業務計劃에도 있습니다만, 文化探訪을 외국으로 간다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市內 初·中·高等學校 학생이 천백만 중에 한 200萬 名이 넘습니다. 우리가 歷史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定理600年の 많은 事業들을 해 오

면서, 또 文化財를 요소요소마다 우리가 600年 前의 모습을 다 찾아보기 힘든 文化財 復元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600年 동안 서울이 변천되어 온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울 歷史探訪이라는 그러한 코스를 만들어서 국민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제는 入試에서 떨어져 나가서 진짜 歷史를 알고 우리 文化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소풍코스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서 몇 번 質問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容辯은 없고 이제 觀光都市로서의 세계적인 수준으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밀바닥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 소풍 가보세요. 어디 公園이나 가가지고 저희들끼리 장난이나 하다가 돈 있으면 놀이기구나 타다가 선생들은 뒷전에서 딴 짓 하고, 지금 靑少年 教育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歷史探訪의 코스를 만든다면 이 코스를 제가 教育廳에게 요청해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歷史를 바로 알고 또 거기에서 산 教育場으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작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歷史探訪 코스를 하나의 자료로도 좋고 또는 관광 코스의 여러 가지들, 금년에는 이 코스, 다음에는 이 코스 이렇게 해서 진짜 首都 서울의 歷史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歷史 공부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市長이 한 1,000餘 名, 몇 백명 초청해서 등산도 가고, 아까 報告하신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우리 後世들에게 歷史를 알릴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두번째는 文化財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風納土城 未補償土地에 관한 請願이 있었

습니다. 지금 既 復元된 區域안에 未補償된 지역의 住民들이  
근 20年 이상을 판자집 같이 다시 建築도 못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課長님, 現場에 저하고 가 보셨지요?

○文化財課長 柳時源; 네.

○孫馥 委員; 그런데 그 때 請願處理할때 課長님 뭐라고 答辯  
했습니까? 中央政府인 文體部에서 그 남은 土地에 대해서는  
文化財保護區域을 해제할 용의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달라 해  
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의 答辯이 뭐니까? 안 된다  
고 왔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答辯해  
주시고, 지금 한 3·40世帶의 서울 市民들이 비만 오면 비가  
집안으로 새고 집도 수리 못하고, 또 文化財는 既 復元이 다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請願 내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처리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정확한 答辯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定都600年 記念事業으로 제작된 100年 前 서울의  
모습 그 造形物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600年 記念館에다가  
展示를 해 왔다가 며칠 전에 서울市立大學校 行政事務監査를  
갔더니 거기 창고같은 博物館에 비좁은 데다 큰 造形物이 설  
치되어 있는데요. 그 造形物을 만드는 데는 學術研究費를 비롯  
해서 造形하는 데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구석에 갖다 놓으면 누가 봅니까? 지금 定都600年 紀念館도  
있죠? 그런 데다가 설치해서 造形物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의 100年 前 모습을 지금 창고에 갖다 박아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우리 中央에는 國立圖書館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물론 自治區마다 각 한 개씩 이상의 圖書館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立中央圖書館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市史編纂委員會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市史에 대해서 책을 1년에 수십권 씩 발행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古都로 봐서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首都 서울인데 이러한 史料들을 지금 보관해 놓을 圖書館이 없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中央博物館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地方自治制가 되었고, 또 이제는 文化와 教養的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익힌다는 뜻에서, 물론 自治區에서 市立圖書館을 지어서 教育廳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충분한 서울의 史料들을 다 분리해서 展示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立中央圖書館을 하나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順德 委員長, 鄭韓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韓植; 梁東錡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지금 文化觀光局 하면 정말 중요한, 서울을 세계 속의 서울 이렇게 한다고 보면 文化觀光局的 활동이 대단히 요구되는 그런 部署인데 여기에 北京에다 서울館을 開館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서울館을 開館했으면 그 규모하고 豫算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質問을 하나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다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을 굉장히 일등 국민이다, 서울 市民이다 그러면 아주 달리 대하는 것을 내가 직접 느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는 觀光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文化觀光局長께서 市立大學을 혹시 방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自願奉仕自로 관광가이드를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이드에 대한 어떤 支給되는 것은 전혀 없는지, 奉仕者라고 그래서, 있다 한다면 서울市立大學校는 地方學生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副業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大學生이라면 서울市立大學校 大學生을 활용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이 지금 102個로 나왔는데 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결정하는지, 제가 어디 몇 군데 가보니까 여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광호텔이라고 되어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 무궁화가 하나 짜리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관광호텔로 하는지 이것을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旅行社가 많이 있는데 旅行社의 規定은 어떻게 해 가지고 旅行社를 허가를 해 주는지, 왜냐 하면 우리 局長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만, 旅行社에서 무조건 돈만 버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람 대가리 숫자만 채웁니다. 모집을 해요. 그러면 女子 몇 名, 男子 몇 名 고래 가지고 外國觀光 간다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또 그 旅行社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 번 臨時會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 道峰山 같은 데도 올라가면 아침에 물 뜨러 가는데도 돈 달라 한다 말이에요. 觀光客하고 아침에 生水를 뜨러가는 사람하고는 구분을 해야할텐데 입장표 받는 사람하고 시

비가 벌어진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市內에 小劇場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풍기 문란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小劇場에서는 영화만 관람을 하는 것인가, 다른 또 예를 들어 음료수라든가 기타 음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실태를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世宗文化會館에 가서 行政事務監査를 했는데 사실은 世宗文化會館의 職制改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世宗文化會館은 文化觀光局所管으로 되어 가지고 해도 그 인원 축소하면서 文化觀光局에서 감시, 감독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될텐데, 또 거기 館長은 한직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고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검토 해서 文化觀光局에서 世宗文化會館을 관장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韓植 幹事, 孫馥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孫馥; 徐在浣 委員 質疑해 주세요.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文化觀光局에서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都市文化振興, 傳統文化保存, 傳承, 또 서울觀光振興, 國際交流增進 등 우리 서울市를 어떤 면에서는 많이 알리고 또 傳統을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5年度 行政事務監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한해 동안 잘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또 같이 의논해서 96年度는 좀더 발전적이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答辯도 해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울을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 外國에서 觀光客들이 많이 찾아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業務報告에 보면 94年度에는 約 358萬名 外來觀光客이 한국을 방문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報告로 된 것을 보면 278萬名 정도가 됐는데 현재 11月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觀光客이 더 늘어나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계로서는 많이 줄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4年度와 95年度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觀光客이 줄고 있는 추세가 됐는지 여기에 대하여 答辯을 주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世宗文化會館의 行政事務監査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보면 市立劇團 創團을 96年度 7月 1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서 市立劇場 建立 基本計劃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먼저 創團이 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9個 團體인가도 世宗文化會館에 연습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創團이 되면 어디에서 연습도 할 것인가, 그 대책을 갖고서 創團計劃을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을 해 주시고요.

觀光協會를 運營, 指導 監督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法的인 것만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앞에 우리 梁東錡 委員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觀光客들의 불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內만 하더라도 交通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外國觀光客들이 오더라도 불편의 소리가 높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本委員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觀光協會라고 한다면 통틀어서 우리 文化觀光局에서 좀더 철저하게 敎育도 좀 하고 啓蒙도 하고 弘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그런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 105페이지 보면 95年度 豫想 不用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不用額이 안 나올 수는 없죠. 다 나옵시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事業計劃變更으로 인해서 不用額이 나온 것이 세 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年 앞도 내다보지 않고 事業變更으로 해서 不用額을 그냥 남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事業變更을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植民地 遺産 清算 및 發展相研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變更을 하게 됐으며, 名譽서울大使 委囑 및 招請 이것도 事業計劃變更으로 不用額으로 남았고요, 國際行事支援도 事業變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變更內容을 答辯해 주시고, 107페이지, 文藝振興基金 支援內譯이 나와있는데 모두 34個 團體가 있습니다만, 완료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支援內譯에서. 그리고 19個 團體가 2次 未申請이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1次로만 끝나도 되는 것인지, 2次를 해야 되는데 團體들이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못하고 不用額으로 남아 돌아가는 것인지, 19個 團體가 2次 未申請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指導, 監督이 소홀했다든지 그 團體들의 어떤 내실에 부족함이 있다든지 할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次 未申請된 團體들에 대한 내용을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劉大運 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劉大運 委員; 劉大運 委員입니다. 豫算 執行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總豫算이 390億원, 執行額이 220億원, 執行殘額이 170億원 인데 課別로 보면 文化課가 77億원이 殘額, 잘못하면 不用額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自治團體 資本移轉이 61億 6,000萬원 돈인데 自活團體 資本移轉이 어떤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移轉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光復事業費가 2億 8,700萬원, 또 補償金이 2億 2,300萬원 돈이 殘額으로 남아 있는데 이 補償金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만, 협의가 잘 안된 상태인지, 안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文化財課에 대해서 82億원의 殘額이 발생해서 거의 다 不用額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보이는 豫算입니다만, 이 중 施設費 쪽에서 73億원 돈이 현재 殘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일 때문에 이 施設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豫算 殘額이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당초 豫算 計劃이 잘못된 관계로 事業執行을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觀光課에 대해서, 역시 豫算도 얼마 안 되는 豫算인데 殘額이 무려 豫算額에서 50%가 넘는 그런 殘額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물론 補償金에 1億 4,200萬원 정도가 殘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補償金이라는 것이 일하기도 어려운 事業이고 이 補償節次가 또는 協議過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런 殘額이 발생했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관광코스가 적절하지 않아서 外國인들이 來訪을 했을 경우에 관광코스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外國인이 달리를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그래서 觀光歲入 增大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여기에 觀光開發費 豫算項目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96年度부터 觀光開發費를 豫算項目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 豫算에 따른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개발하고 그럴 때만이 그야말로 觀光政策이 정착되어 가지고 觀光稅 新稅源 開發이 추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觀光開發費 豫算項目을 신설해서 여기에 필요한 충분한 豫算을 그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觀光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國際交流課 豫算案을 보면, 一般運營費에서 7億 9,800萬원, 旅費에서 1億 6,100萬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該當課가 國際交流課라면 1億 6,000萬원이 남으면 해외교류 또는 조사, 이런 旅費인 것 같은데 과연 1億 6,000萬원이라는 돈이 殘額이 되어 가지고 不用處理가 될 豫算이라면 당초 豫算이 잘못 계획되었거나 또는 계획된 國際交流를 활발하게 추진을 못 했거나 이 둘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答辯과 一般運營費에서 7億 9,800萬원, 글썽요, 과연 國際交流課에서 一般運營費에서 이렇게 殘額으로 남겨둘 만큼 우리 서울시 豫算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答辯을 해 주시고, 公報官 監査를 할 당시에 市長 施政演說文을 500部 인쇄해 가지고 外國人에게 弘報를 했는데 이것의 豫算項目이 없어서 어디서 갖다가 이 돈을 썼느냐 했더니 國際交流課에서 豫算을 갖다 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책자를 발간한 豫算執行內譯이 本委員이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성 答辯을 해 주시고요.

서울文化都市 中長期計劃 樹立現況에서 用役內譯을 보면 刊行物, 서울都市文化發展 方案이라는 豫算이 1億 500萬원이 있는데 用役部署가 市政開發研究院이구만요. 그런데 600部に 392面밖에 안 되는데 1億 500萬원을 600部로 나누기 하면 豫算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데 과연 이것은 公開入札을 했는지, 用役을 주어서 거기에서 入札을 해서 殘額이 남았는지, 또는 책 발간에 따른 研究費까지 같이 計上되어서 1億 500萬원을 用役을 준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요.

지금 自治區別 區民會館 施設內容을 보면 25個區 중 17個區가 완료가 되었고 8個 自治區가 설치 중에 있거나 垡地 購入을 준비중에 있는 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대면적일 텐데요, 유일한 文化空間을 區民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244m<sup>2</sup> 정도의 비교적 쓸만한 무대면적을 갖추었는가 하면, 어떤 데에는 75m<sup>2</sup>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과연 천백만 首都서울에서의 文化空間 確保와 또 거기에 대비한 文化藝術의 서비스를 과연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을는지 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설된 17個區는 設計變更을 통해서 豫算을 확보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거의 막힌 상태라고 못을 박고 나머지 8個區는 말이죠, 基本設計를 文化觀光局에서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제시를 해서 綜合建設本부와 自治區에서 基本設計를 뽑아낼 때 일정비율의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각 自治區別文化空間을 그리고 舞臺를 확보토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政策입니다. 이것이

바로 文化政策입니다.

그러니까 政策的 代案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自治區의 現員 該當人力으로서는 이런 깊숙한 미래지향적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文化觀光局에도 建築職 公務員들이 몇 名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專門性이 있는 公務員들이니까 같이 의견교환을 통해서 基本設計圖面을 마련해 가지고 自治區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觀光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은 李載震 委員 質問해 주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먼저 姊妹結緣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姊妹結緣 확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 참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姊妹結緣을 맺어서 駐在官 5名을 파견했는데 북경에 둘, 파리에 하나, 샌프란시스코에 하나, 동경에 하나, 이렇게 다섯 사람을 파견했는데 얼마만큼 파견된 효과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姊妹結緣을 맺으면 한 사람씩 파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는 다섯 사람의 明細書,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91年度에 평양과 서울간에 姊妹都市를 맺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市長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市長이 바뀌면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것인지, 곧 하겠다고 해 놓고서 推進한 實績은 하나도 가져다 주지를 않는데 이러

한 일이 이제 文民時代에서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과거에 어떻게 그것을 끝냈으며, 앞으로 趙淳 市長께서도 京平蹴球 문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겸해서 평양과 서울시간에 서로 姉妹結緣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에 答辯해 주시고, 世宗文化會館 運營 改善 方案에 대해서 좋은 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世宗文化會館의 行政事務監査를 할 때 보니까 事務局長이 필요 없는데 事務局長 制度가 있어요. 왜냐, 지금 事務局長이 市長 秘書室에서 일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이 지금현재 世宗文化會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運營 改善方案에 公社를 하려는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그 대신 藝術團體가 8個 團體가 있는데 그 8個 團體에서 같은 長 중에서, 즉 말하자면 한 사람이 그 전체의 여덟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長을 그 자체에서 選出하든지 任命을 하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責任者, 그 藝術團體長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 團體長을 서로 보살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앞으로 公社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世宗文化會館 館長이, 사실 區廳長하던 사람이 잠깐 쉬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봤자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稅費만 축내고 있는 실정인데 아예 館長을 없애고 거기에 事務局長을 두고 지금 현재 文化觀光局長이 거기 館長하면서 그 위에 하나의 部署로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당연히 世宗文化會館 館長은 文化觀光局長이 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事務局長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현 체제로는 나은 편이고, 아까 말한 公社나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漢江祝祭에 대해서 2億 4,000萬원을 들여서 그 祝祭를 했는데 별로 所得이 없고 또한 市民의 호응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新規代案으로서 문화프로그램을 대체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豫算을 얼마 들여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 行事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지 豫算은 巨金을 들여놓고 나타나는 實績은 文化行事의 값어치가 없이 모든 行事가 진행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新規代案의 프로그램을 혹시 구체적인 代案이 있으면 그것을 좀 확실히 밝혀주시고, 또 대보름 민속놀이로 다리밟기 문제도 제가 거론한 문제입니다만, 2億원을 들여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豫算을 낭비해 가면서 KBS돈벌어 주는 것인지 어쩐지 그런 行事를 하고 있다, 해마다 行政事務監査나 또는 무엇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아니 재미 삼아서, 너무 아까워서 여러 가지로 내가 市民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야의 종, 밤 0時에 TV를 통해서 종소리를 듣는 시민들은 아, 지금 종을 울리는구나하고 생각하겠는데 그 종이 한번 울리는 순간 우리와 血統가 수천만원씩 수억 원씩 없어진다는 것을 市民들이 알 때에는 정말 뼈아픈 일이고, 종을 좀 두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 하는 것을 의아해 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난 文化觀光局長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하면 기천만원씩 조명비로 들어간다 하는데 사실은 그 조명을 조금 덜해서 豫算을 확실히 節減해 가지고 그 제야의 종이나, 3·1節, 광복절 이러한 모든 종을 울릴 때마다 우리 市民이 참 내가 낸 血稅가 저렇게 허무하게 하는 뼈아픈 마음을 갖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

음으로 그 종소리를 듣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雲岷宮 補修에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해 가지고 觀光客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또 들어가는 豫算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豫算이 지금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정확히 끝날 것이며,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훨씬 더 장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언제까지 完工이 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市民에게 공개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復元이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大院君家의 遺品, 그 遺品の 臺帳을 복사해서 우리 委員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遺品은 사실 大院君의 私郎인 雲岷宮을 매입할 때 遺品과 建物이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값어치가 우리한테 따라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해 주시면 좋겠고요.

民間團體間의 交流協定 유도를 해서 商工會議所와 靑少年聯盟 등 했는데 기왕이면 靑少年聯盟보다는 보이스카우트 등 이렇게 해야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등을 쓰려면 더 세밀하게 나열하고 그리고 쓰더라도 분명히 보이스카우트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현재 여기에서 補助하는 것도 있으면 한 3,4年間 補助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靑少年聯盟은 全斗煥 前大統領이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靑少年聯盟을 만든 단체이고 보이스카우트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이 靑少年聯盟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주고, 여

기에 보조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圖書館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冠岳과 城東과 中浪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席數와 補助金額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席數나 補助金額이 똑같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정된 金額과 또 어째서 변경됐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自治區지만 人員이 많고 面積이 크고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席數도 많아야 되고, 또 補助도 더 많이 되어야 되고, 建物도 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그 문제를 잘해 주시고, 自治區事業을 하실 때에 무슨 녹두제라든지 무슨 제 이러한 제를 할 때 그 自治區마다 되도록 이면 특성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데는 공히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균형적으로 맞게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自治區事業 내역은 있었습시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은 林靜枝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21世紀는 文化事業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文化觀光局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先進國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靑少年問題도 또한 중요하고 앞으로 靑少年이 우리 國家를 책임질 그러한 사람들로써 그 靑少年을 위한 文化事業으로 靑少年들이 누구나 傳統文化의 年中 無休, 적어도 無料내지 實費로 접할 수 있는 事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3·4共和國의 서울歷史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北漢山城 復元 整備가 1段階는 완료되었고 2段階가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러한 것과 또 서울의 傳統文化觀光地 이러한 곳을 現場踏査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시 文化敎育委員으로서 어떤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藝能保有者 養成 保護에서 이 분들의 역할도 또한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어떤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南山과 漢江을 觀光하는데 볼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을 觀光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특히 汝矣島에서 서울로 오는 택시를 이용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었는지, 아직도 문제가 있는지 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黑人들이 韓國人에 대한 적대심이 큰데 그것이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韓國人村이 있는 곳은 어디나 黑人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韓國人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黑人들을 韓國에 와서 얼마간 韓國을 알리는, 적어도 적대심을 갖지 않게 하는, 또한 한국사람들이 世界 人類平和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면 그들의 韓國人에 대한 적대심은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도 韓國人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끌고루 黑人들을, 물론 4名에서 30名으로 늘린 것은 다

행이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또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魚潤慶 委員 質問해 주세요.

○魚潤慶 委員; 魚潤慶 委員입니다.

觀光振興이나 觀光藝術이나 文化 이런 것이 豫算編成을 보면서 과연 이 豫算으로 목적했던 事業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해 봅니다. 그러나 일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제시된 豫算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것은 일하기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자면 한도 없이 부족한 것이고 또 옛날에 해 오듯이 그대로 안일무사 하게 하는 척해 보이는 이런 事業이라면 이 豫算도 상당히 많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4페이지 추진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왜곡된 歷史를 바로잡아 위대한 민족혼을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民族的 自矜心을 고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진성과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이 문장을 저는 읽으면서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이 허구의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적힐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직설법으로 찍어서 나에 관련된 얘기를 한두 가지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을.

江東區에 나가면 지금은 상일국민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엔 구천국민학교였습니다. 2次大戰 戰爭 말기에 소개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구천국민학교에 入學을 했어요. 내가 2學年 때 解放이 됐는데 解放이 됐을 때 그 學校의 울타리가 무궁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얘기했었나 모르겠어요. 무궁화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왜

정 말기에 일본놈들이 韓國精神, 韓國魂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산골짜기의 외딴집 울타리 밑에 있는 무궁화 나무까지도 뽑아버리던 그 시절에, 그 당시는 거기가 京畿道 廣州郡이었는데 광주군에 몇 안 되는 국민학교 울타리가 무궁화 나무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뒤에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解放이 되니까 이 울타리에 서 있는 나무가 우리 나라 나라꽃이다, 무궁화다 하는 것을 그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 꽃이라니까, 그렇게 바라던 우리 나라 꽃이라니까 움터 나오는 것들을 서로 캐다 제집에 심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심겨진 沿革을 추적해 보면 1930年代에 南宮檇 선생이 무궁화 나무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운동을 펼 때 그 때 그 나무를 심었었어요. 그 당시 구천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최문찬 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教育界에 유명한 분이셨는데 저는 그 후에 이 시내로 들어와서 흥인국민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卒業을 했어요. 卒業을 하던 때에, 李始榮 副統領일 때입니다. 국민학교 졸업식날 副統領이 와서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국민학교 졸업식에도 副統領이 오시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문찬선생이 그 당시 거의 정년이 됐기에 그분의 教育末期를 빛나게 해 주기 위해서 副統領이 와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그 바람에 우리는 아주 호사를 했는데.

倭政 때 그렇게 어렵게 지켜졌던 그 무궁화 나무가 獨立이 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指導하는 쪽이나 또 行政을 하는 쪽이나 그 무궁화 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게 심졌던 것이고 어렵게 지켜졌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던들 아마 지

금 校庭에 몇 그루 나무라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아주 비통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것인데 제 事業場이 釜山에 있어서 사직운동장을 지나다 보니까 풍악을 울리고 경찰악대가 와서 行事를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行事인가 하고 봤더니 코무덤 봉안식이라는 그런 것을 합디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코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壬辰倭亂때 아주 잔학한 倭兵들이 조선 땅에 와서 무고한 백성들의 코를 베어갔어요. 처음에는 코가 아니라 귀를 베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戰果예요, 그러니까 목 하나 친 놈이 귀 하나만 베어가야 하는데 양쪽 귀를 베어다가 나는 사람 둘 죽였소 하고 虛僞報告 하니까 이제 上部에서 하나만 있는 코를 베어와라 해서 코를 베어다가 그것이 이만 몇 천 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코를 베어다가 소금에 절여서 교토에 나중에 도요토미 사당 앞에 코무덤이 있던 것을 재작년에 이것을 봉안해 왔어요, 봉안해 온 뜻은 대개 400년이 넘은 원혼을 달래 준다는 이름으로 거기서 그것을 파냈습니다. 이것이 큰일 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서도 왜곡된 歷史를 바로 잡고 위대한 民族魂을 이렇게 되살린다는 얘기를 같이 서있는,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우리 같은 世代의 사람들이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 하나 꾸짖고 질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내 생각엔 이완용보다 조금도 못 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적에 과연 그 교토에 들어서 코무덤 앞에 가면 비록 國內에서는 政府의 施策을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가

슴에 뜨거운 것이 치솟게 되지요. 그러기 마련입니다. 다 愛國者가 되게 되지요. 어떤 動機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어요.

코무덤은 일본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없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全國民이 어떻게 보면 責任을 져야 할 비통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世代에서 바로 어제, 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왜곡된 歷史를 바로잡아서 위대한 民族魂을 되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事業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範圍라고 할까, 情報의 한계라든지, 또 認識의 한계라든지, 모든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폭넓은 어떤 것에서 해야 걸러져 나가는 이런 것이 없이 잘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침 江東區에 光復象徵廣場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해서 그 구천국민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던 것을 알고서 江東에 지정했느냐, 알고 했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면서도 이렇게 造形物 하나 해 놓고 公園을 조성하는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단한 고장입니다. 3·1運動 때 거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했던 그런 것들을 거의 기억 못하는, 요새 사적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 記錄에 별로 안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직접 3·1運動 당시를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그 당시에 만세를 앞장서 불렀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구의 문장이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 하시는데 좀더 폭넓고 자세한 情報를

가져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설득력 있는 行事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質疑로 들어가겠습니다.

江東區에 光復象徵公園을 조성하는데 그 豫算은 얼마나 되고, 대개 어떠한 스케일로,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靑寫眞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文藝振興基金이 133件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개 어디서 얼마에 그 基金을 신청했는지 그 내용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市史編纂事業으로 서울600年史가 完刊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 市議員들 말 그대로 使命感으로 봉사하는 뜻에서, 아마 그 책 사 보시기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文教委에 있는 市議員들에게 그것 한 질씩을 기증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의 상당수가 寄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文化行事に 있어서 漢江祝祭에 한마음축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漢陽에도 한양씨름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조상님들은 1408年 太宗 8年때부터 이 漢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제가 587年 이렇게 죽 家塋를 이어서 이 漢陽에 아주 오래 살고 있는 토박이올시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내가보지 못한 것들은 조상님들로부터 들어서 많이 알고 또 내가 직접 보았던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히 얘기하면 엘빈 토플러입니까? 그 사람

이 쓴 씨드웨이브라고 한 그책에 農耕社會, 産業社會, 情報社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설명한 것 같은데 좀 주제 넘은 얘기로 그 세 가지를 다보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던 世代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서울에는 平陽의 박치기, 漢陽의 발차기 이것이 택견의 일종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엔 거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傳統的인 것으로 서울 주변에서 松坡에 가서는 힘 자랑 말라고 그랬어요. 松坡 씨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松坡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씨름은 옛날에 百中 때면 으레 송아지 걸어 놓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地方에서도 오고 그런 큰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서울에 씨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百濟遺産이고, 百濟文化입니다. 서울씨름은 오른씨름이었어요, 요새 장사 씨름하는 것은 왼씨름입니다.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이 서울의 고유한 文化를 發掘하고 保存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왼씨름으로 하는 천하대장사니 장사씨름도 있습니다만, 고유하게 내려오는 百濟文化의 하나로 이 서울의 씨름은 오른씨름이 이런 것이 있었다, 漢江 白沙場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再現하고 앞으로도 保存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漢陽에는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가서 그 이름이 얼핏 생각이 안 나서 그 이름을 알아 가지고 왔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리꾼이 아니고, 요즘 무대 위의 소리꾼 하면 그 분들은 거의 권번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번소리였습니다. 대개 창이라고 그럴까요, 서도 잡가니 하는 분들의 소리라는 것은 대개 거기서 훈련받은 그런

분들인데 그것 말고 民衆에서 民衆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소박한 庶民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소리들이 傳來되어 오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여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情報가 위로, 또 이런 것을 무척 목마르게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성과거대전 이런 것을 再現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면 솥을 걸어 놓고 우리도 솥 있다 하는 식의 비유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솥이 있으면 쌀을 넣고 물을 넣어서 불을 때 가지고 밥이 되어야 그 솥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과거시험을 보는 형태만 거죽으로 보여 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敎育이 되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핵심이라고 할까, 그러면 옛날에 漢文學이 전해 내려오던 것이 宋나라 때까지는 훈고학이었죠. 孔子 때 그것이 있었습시다만, 孔子의 思想이나 이런 것이 중간에 거의 끊어졌다가 훈고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던 것이 朱了에 이르러서 어떤 성리학, 성리개념으로 성리학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지요. 이 성리학은 상당히 名分과 理論에 치우쳤다 하는 비판이 約 500年後 王陽明에 의해서 실학, 양명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양명학은 우리 나라에 傳授를 못 했어요. 조선조 말기까지 우리의 思想이라고 할까 文化를 지배해 왔던 것은 그저 순전히 주자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과거시험 장면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그 精神, 그 思想, 그 哲學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또 그것을 주체하는 분들은 과연 그러한 使命感이나 哲學을 가지고 그런 思想을 가지고 이것을 주체하는 것이냐? 外形만 이렇게 해서는 그림 그려놓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이런 行事를 해 나가면 더 값진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慶熙宮地 復元에 대한, 이것도 똑같습니다. 外形만 復元하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意識과 精神이 배어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慶熙宮이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大院君 사시던 雲岷宮, 이것을 復元하고 遺品을 정리하고 하는 데서도 그렇지요. 조선조는 성리학이 지배한 철저한 儒敎精神에 의해서 儒敎哲學으로 전승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양반문화에 대한 復元을 宮地를 復元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또 흔히 傳來의 民俗文化하면 庶民文化만 있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庶民大衆文化인양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士大夫家를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조를 지배해 왔던, 왜놈들에 의해서 우리 나라 지배사상이 四色黨派에 의해서 아주 못된 것으로만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忠誠에 대한 또는 孝悌에 대한 이런 것은 앞으로 수 천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양양을 하고 이어져 後孫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궁궐을 復元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양반문화,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앞으로 우리 後孫들에게 이 敎育을 철저히 시켜주면, 양반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팔자걸음 걷고 슬슬 유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精神을 지배해 오는 우리들의 倫

理, 道德, 이런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꼭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옛날 것을 復元하고 이러는데 흔히 땅속에서 캔 이런 도자기가 제일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잘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찾고자 하면 찾아지고, 잡고자 하면 잡아지는 우리 先祖들의 대단히 고귀한 그런 思料, 이런 것을 復元하고 다시 保存하는 쪽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北漢山城을 復元, 整備하는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阿且山城의 復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 답사하는 豫算이 일부 세워졌다는 말씀에 아주 대단히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 文化라는 것은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증발하지요. 아주 휘발성이 강합니다. 解放前에 우리 서울에 바로 이 世宗路에 말마차, 소마차가 굴러 다니던 때에 庶民들의 文化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 사는 분들은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이 서울을 지배했던 庶民들의 精神이나 이런 것이 그 후에 거의 없어졌죠. 아주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가 성장하기는 往十里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 往十里나, 광나루, 뚝섬, 서빙고 이런 강으로 죽 내려가면서 특이한 사투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투리 배울까봐 좋아리도 많이 맞고 했는데 그 사투리들은 흔히 얘기하는 庶民들의 언어, 그것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中·高等學校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동네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전혀 없어졌어요. 서울에도 그런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그것도 保存했어야 하는 것인데 언어라는 것

은 保存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다른 文化들도 이 말과 같이 쓰지 않으면 다 증발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주 대단히 많은데 阿且山城 復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으로 거기에 옛날에 중석광이 많았어요. 阿且山에 중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質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하다가 그만뒀는데 굴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虞犯地帶가 되어서 작년인가 아마 市에서 그런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 굴을 막아라 하는. 그 굴을 막으러 日當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돌이 없으니까 이것들 갖다 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큰일났다 그래서 區廳長한테, 李浩助 內務局長하는 분이 區廳長할 때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나는 일이니까 빨리 阿且山城을 復元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無形文化的 發掘 傳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無形文化財 또 그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保有者, 이런 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發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江東區에서 나왔던 호강쌍 상여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의 文化財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5年 이내, 5년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소리꾼 이재현씨 라고 있어요. 소리꾼이 계신데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고 있는데 傳授生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반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요새 이 양반 소리 잘한다는 얘기가 全國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불러다니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또 傳授生 가르칠 시간

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양반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庶民들의 文化 속의 하나다, 그것이 바로 이 분입니다. 職業的으로 소리하는 소리꾼이 아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저희는 흔히 지금은 岩寺洞입니다만 그것을 바윗절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것을 왜놈들이 이렇게 洞名으로 지어내고 할 때 岩寺洞이라고, 우리 부르던 말을 그대로 漢文化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윗절이라 하면 소리자랑을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소리의 맥이 이어져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이재현씨로서 아마 그것이 끊어지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民俗公演 뭐 하는데 서울을 대표해서 아마 호상쌍상여 놀이가 나갔을 것입니다, 濟州道로. 入賞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서울市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後援하고 키워줘야 할, 얼마 전에도 이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1년에 3,000萬원씩만 지원이 돼도 이것이 잘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흔 여덟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메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점심이라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豫算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먼 데서, 보이지 않는데서 찾지 말고 지금 그것을 保存해 오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市에서 찾고자 하는 文化財이고 發掘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傳統文化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光復50周年行事를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 이것은 統一로 연결되는 의지나 성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

을 아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뭐니까? 統一입니다. 우리는 統一이 되어야 산다고 하는 말을 입으로는 각자가 이렇게 하면서 금년에 政府나 市나 주체가 되어서 光復50周年行事를 거창하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統一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데에 아주 굉장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아까 京平蹴球 말씀이 나왔습시다만, 그것도 실현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고, 우리 목적은 統一이다, 民族的인 소원은 統一이다 하는 것을 光復50周年行事에서 그런 것을 걸어 놓고 했으면 더 뜻이 알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觀光案内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市內에 7個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시다. 꼭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고 어디에 그것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얘기 않습시다. 그런데 가끔 金浦空港에 나가보면 金浦空港에는 이 案内所가 없습시다. 제일 첫번째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울市가 아니어서 우리가 안 해 놓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觀光案内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가급적이면 金浦空港에 내리는 손님들, 외국손님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죠. 서울의 손님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좀 세세한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은 林鍾化 委員 質問하세요.

○林鍾化 委員; 林鍾化 委員입니다.

觀光局長 이하 關係官 여러분, 行政事務監査의 質疑 答辯과 또 資料 蒐集에 연일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公務

員의 소신있는 答辯과 또 一貫性 있는 업무 추진을 제가 요망합니다.

文化觀光局이라든지 우리 文化教育 소속의 世宗文化會館, 또 公報官, 公務員教育院, 서울市 教育廳, 또 國民學校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느끼고 報告받은 사항은 너무나도 서울市가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國民學校만 해도 같은 서울에 있지만 汝矣島國民學校라든지 그런 부유한 學校가 있으면 또 너무나 빈촌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市에도 25個 區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文化藝術創作 취지에서, 文化觀光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99億원 豫算을 따놓고 執行額이 221億원, 未執行額이 178億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남아 있는데 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실질적인 것, 예를 들면 영구, 긴 안목을 가지고 保存할 수 있는 文化行事에는지극히 돈이 적게 들어갔다,

예를 들면 世宗文化會館은 서울市를 대표하는 團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8個 藝術團體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館長이라는 분도 專門性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보좌하는 書記官이라든지 事務會 이런 분들도 專門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舞臺監督이 없었어요, 世宗文化會館에. 그렇다면 거기에 藝術團體長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공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文化觀光局에도 지금 觀光局長 이하 事務會, 書記官 해 가지고 지금 專門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그러면 專門性이 없는 사람이 계속 와서 1年, 2年 있다

가 또 發給에 의해서 가고 마는지, 그렇다면 文化觀光이라는 것은 영구보존형태에서라도 좀 專門性 있는 사람이 와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專門性 있는 사람이 몇 %나 되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監査資料에 보니까 名譽市民審査委員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오늘 처음 발견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議員 해 가지고 內務委員會 委員長 吳世根, 內務委員會 金水俊, 또 文化教育委員會 梁議員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고 또 서울시 世界化推進委員會 명단에도 보니까 우리 市議員이 몇 분이 들어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文化觀光局에서 우리 개인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議會 議長이나 常任委員長한테 報告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25個 區廳이 있는데 지금 文化院이 이미 되어있는 데가 있고 되지 않은 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文化院에 1년에 約 5,000萬원씩의 豫算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된 區廳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계끔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지금 178億 원이라는 豫算이 남아돌아 가는데 각 區廳에도 文化院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5,000萬원에서 增額을 해서 1億원 이상을 補助를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世宗文化會館 대강당 소강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쓰기 때문에 無料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賃貨使用料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李善宰 委員님 質問해 주십시오,  
○李善宰 委員; 文化觀光局이 대단히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經濟發展에 만 전 신경을 쓰고 또 經濟的인 풍요만 가지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 되지 않고 精神文化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文化觀光局이 이제부터 걷어 부치고 옛날 같은 생각 가지고 안이하게 하지 말고 좀 나서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도시관광코스를 아마 外國人들을 초청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아주 진일 보한 것 같아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關係者들이 직접 관광코스도 다녀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더 잘 運營될까도 생각해 보는 그런 발로 뛰는 文化觀光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관광코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관광코스과 그 관광코스별 이용실태, 그리고 향후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계획이 있느냐, 있다면 그 계획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자료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현재는 3個 분야 8個 코스가 있는데 그 이용실태는 기존 관광코스의 단조로움과 다양한 볼거리 부족으로 市内觀光이 활성화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에 났다고 하는 얘기처럼 전에도 이렇게 좀 現場도 가보시고 活動을 했더라면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開

發했다고 하는 관광코스가 단조롭지 않은지 저도 다녀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울에 있는 관광코스만을 생각지 말고 首都圈 觀光名所와도 한번 좀 연결시켜서 코스를 開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市內觀光하고 판문점이라든지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하코의 연결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판문점 같은 데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분들이 分斷의 현실을 좀 느끼게도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 슬픈 일 이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觀光으로서의 값어치는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市內交通難, 駐車難. 外國人 選好 未洽 등의 사유로 旅行業界가 기피를 한다, 그래서 시내관광코스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료에 왔는데 이것도 왜 그런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다면 그 결과를 좀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觀光業者 몇 분에게 들어 본 바로는 서울市內에 관광코스를 開發해서 어디어디를 이렇게 가겠다 하고 욕심껏 마련해 놓았는데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려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대충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가고 어떤 때에는 빼먹고 가고 그러니까 왜 거기는 안 가느냐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다고, 그 관광버스도 버스전용차선을 좀 이용하게 해 줘서 소통의 원활을 가져온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南大門市場이나 東大門市場 같은 데도 가 보고 싶은데 차로 가서 잠깐만 대어 놓으면 딱지 떼고 어디에다

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東大門市場, 南大門市場 가서 쇼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어떻게 路上 駐車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다든지, 專用駐車場을 마련해 주든지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 보고 큰 문제가 있다면 觀光業者의 입장에 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관광코스에 가면 案内員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朝鮮日報에 난 것을 보니까 秘苑을 관람했는데 規則이 너무 엄격하고 그래 가지고 觀光案内員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경보다 주눅만 들어 가지고 괜히 호통만 듣고 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寫眞도 찍을 수가 없고 물어봐도 答辯하지 아니하고 그 隊列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 1時間 10分 間에 본다고 하는 코스를 40分 동안에 끝내고 나왔다, 이래 가지고 어디 觀光하러 거기 가겠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실지로 사람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코스를 새로 開發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이 결국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정성을 좀 덜 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世宗文化會館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 公演時에 그 座席數에 비해서 觀客數가 얼마

나 되는지 그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市民의 文化享受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事業을 이렇게 開發하고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존 施設物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돈도 들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마 世宗文化會館에서 하는 公演의 觀客數가 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施設을 마련해 놓고 실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새로운 建物을 지으면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정성을 좀 바쳐 주시도록 바라고 머리를 좀 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民俗專用劇場을 하나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傳統藝術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外國에 나가서 公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찾아오면 또 서울을 찾아오면 外國人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그들에겐 가장 좋은 볼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民俗舞踊이라든지 풍물놀이이라든지 국극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公演을 상설화해서 우리들도 좀 보고 또 外國人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觀光局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觀光資源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낮에는 다니면서 이런 저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夜間에 나왔을 때라도 좀 볼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南大門을 國寶1號라고 그러합니다. 東大門 이런 것은 거리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밤에 가면 그것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가 照明施設같은 것을 해서 밤에도 좀 볼 수 있게 주요 有形文化財들에 대해서 그런 施設을 갖춰 가지고 夜

間觀光資源化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山에 한옥촌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촌을 거기다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촌만 해서 집 몇 채 덩그라니 짓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南山의 청학동이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시대에는 거기에 아주 淸貧한 淸白吏들이 많이 그 곳에서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만 짓지 말고 요즘 같이 이런 세상에 淸貧하게 國家를 위해서 社會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의 그러한 精神이 거기에 가면 물씬 풍기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도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한옥촌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乙東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金乙東 委員; 金乙東 委員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官公署를 들어가서 구경을 한 곳이, 또 맨 처음에 들어간 방이 바로 文化觀光局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一般市民들은 이런 官公署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껏 가야 區廳에 가서 서류를 떼는 것, 아니면 洞會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 이외에 별로 여자들이 들어가서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文化觀光局에 들어가 가지고 받은 인상은 불쾌감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계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게 된 동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女性國劇이 定都600年 行事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豫算이 잡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타러간다고, 또 그것을 굉장히 좋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女性國劇團體들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헌도가 많고 가장 소외감을 받았을 때 7, 8年 이상을 지켜 왔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의 혜택을 줄 때는 그 동안에 했던 공헌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당연히 그 쪽으로 떨어질 줄 알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 8年 동안 保存을 해 오고 育成시켜온 그 단체에 그것이 돌아가지를 않고 단 한 번의 公演을 했던 단체로 서울시의 支援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맨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文化觀光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거의 목살하는 투의 대접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단체의 이름과 그때 審査를 했던 審査委員의 명단과 그 會議錄의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은 우리의 傳統文化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傳統文化를 살려서 그것이 또 文化觀光局에서 어떻게 우리 나라 文化도 좀 살리고 또 觀光도 하고 일거양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女性國劇 같은 民俗文化를 살리면서 이것을 관광코스 겸해서 이렇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對答을 지난 번에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雲峴宮을 매입해서 거기에 무슨 傳統婚禮場을 만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 우리 나라 民俗藝術을 선보일 수 있는 常設民俗公演場 같은 것을 지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魚潤慶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雲峴宮에서 우리 나라의 文化도 접하고 또 항상 오면 民俗公演도 접하고, 우리 觀光客들이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고 그러면 코리아 하우스에 가서 우리 나라 民俗公演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관광코스 중에 항상 常設公演할 수 있는 그런 公演場을 하나 반드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世宗文化會館 監査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一般管理職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舞臺監督 하나도 배치를 못해주는 이런 데에서 오히려 관리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는가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專門職의 人員보다 一般管理職의 숫자가 더 많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專門人員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보면은요, 말로는 傳統文化 育成 保存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의 豫算編成을 보니까 傳統文化하는데 1億 餘원의 돈뿐이 編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커스, 여성국극, 민화 등 斜陽文化를 지원하고 文化財保護法上 無形文化財 지정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 안 되는 일입니다. 여성국극 하

나를 제대로 우리가 公演場에 올리려면 최소한도 2億 餘 圓의 돈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그것이 볼거리를 만들려면. 그런데 이 1億圓의 豫算編成된 것을 가지고 이런 많은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주 정말 保存, 育成해 주시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趙相勳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相勳 委員; 廣津區의 趙相勳 委員입니다.

지금 文化觀光局長은 부임하신 지 4個月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業務報告書에서는 내년도에 서울문화정보센터 이것을 만드는 案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실제 豫算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센터와 世宗文化會館, 文化觀光局이 상당히 상호 업무가 중첩되어 있고 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業務計劃書를 봐도 文化觀光局에서 하는 自治區 公演이나 이런 모든 事業들이 실제 世宗文化會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世宗文化會館이 하는 事業과 文化觀光局的 事業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설된 문화정보센터, 世宗文化會館, 文化觀光局이 어떠한 위상에서 적절히 역할과 지위를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을 과연 하셨는지 그것을 첫번째 물어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현재 組織體制改編案이 서울시에서 연구 진행 중인데 文化觀光局에서 어떠한 의견을 올렸는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앞으로 반영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

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사실 업무 수행이 約 4個月, 초기에 부임하셨을 때 가장 바쁘셨을 텐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市長을 수행해서 東北亞 3個國 大都市 首都를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業務報告書上에 나오는 것으로는 내년도에 베세토 서화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한 가지 뿐인데 文化觀光局長이 수행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事案이 과연 있었는지, 3個 國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쭙봤지만 역시 組織改編이나 體制改編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안이라 여쭙보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영화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世宗文化會館은 그 자체 극장 규모가 세계 두번째가 되는 約 3,700席 규모의 대극장입니다. 영화를 전용적으로 상영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강당 約 1,500席 내지 2,000席의 중규모 강당이 대단히 소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市立劇團이나 國劇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규모 공연을 위해서라도 중규모 강당이 대단히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확보할만한 의지나 또는 실제 활동을 해 오셨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서울市에서 가장 눈먼 돈이라고 할 수 있는 文化藝術振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資金支援입니다.

현재 文化觀光局에서는 크게 文化財 管理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文化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文化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市 事業으로 만들어진 事業도 있고 文化藝術創作活動支援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듯이 나누어준 돈도 있고 올해부터 文化藝術振興基金이라고 해서 文化藝術振興基金에서 나오는 利子 收入을 가지고 지원

하는 세 가지 형태 지원방식이 있는데요, 첫번째, 서울시 事業이란 부분은 지금 文化觀光局에서 독자적으로 企劃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聯關團體나 그 事業의 특성상 그 주관단체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 事業으로 채택되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4年度에는 定都600年 事業이라고 해서 담당을 했고 95年度에는 光復50周年이라고 했습니다. 96年度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市事業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 市事業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대개 한 30億원 정도의 豫算이 드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서울영화제라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 수준의 豫算 편법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번째, 文化藝術創作活動支援金은 현재 審議委員會도 없습니다. 그리고 件別 支援方針下에서 올해는 10件에 8,300萬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자체도 왜 審議委員會가 없이 호주머니에서 나누어주듯 나누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번째, 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額인데요, 이것이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4年度 12월에 49個 團體에 5億 4,000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95年度 1월에는 다시 46個 團體 5億 1,240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올해 報告된 내용을 보니까 34個 團體에 額數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團體들이 지원 결정까지 해 놓고 안 받아 간 것인지,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1次 支援金은 절반을 받고 2次 支援金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 事業을 수행하지 않거나 1次 支援金 받고 2次까지 신청할 명목이 없거나 해서 결국 1次 돈만 떼어먹고 행사는 안 해

버리고 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基金支援團體申請書, 그 다음에 資金支援內譯 決定書, 그 다음에 資金을 支出한 內容 證明, 그 다음에 行事完了에 대한 報告書式, 이 모든 것을 文化藝術振興基金團體 그리고 文化藝術創作活動支援金を 받은 團體, 이 두 團體에서 모두 原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韓國觀光施設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年間 外來觀光客이 約 350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숙박시설, 그것도 특급숙박시설의 年間 投宿가능한 人員數가 제가 알기에 100萬이 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를 밝혀 주시고, 실제 外國人들이 와서 묵을 호텔조차 변변히 없는 상태에서 外國人觀光客을 불러 모은다고 해서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특급, 1급 관광호텔은 1年 사시사철 만원이라고 하고 일부 여행사들은 호텔 객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市 차원에서 과연 이러한, 물론 특급호텔은 交通部나 다른 中央部處에서 승인할지 몰라도 확장하려는 노력을 서울市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몇 가지 文化觀光局 주관행사에 94年度도 그렇고 95年度도 그렇고 外部團體로부터 協贊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1億 5,000萬원, 작으면 2,000萬원 내지 4,000萬원 정도씩 協贊을 받았는데 이 協贊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신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광고나 또는 기업이미지 활용을 위해서 그 장이 활용된다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서 달라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의 準租稅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文化觀光局 행사에 관련된 外部協贊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는지, 主管社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文化觀光局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그 歲入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文化地區를 내년엔 설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용적률이나 보너스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폐율. 그런데 文化地區 자체가 사실은 保存되어야 될 地區이고 지금 文化地區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都市計劃上 지장을 받는 많은 地域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 등 보너스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발상 같은데 현재 文化地區 또는 文化特區라고 하는 이 개념하에 보너스제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委員 여러분, 원활한 議事進行을 위해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30分 監查中止)

(18時 01分 監查繼續)

○委員長 安順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查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許光泰 委員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漢江 거북선에 대한 韓國靑少年聯盟에게 委託 管理를 했는데 그 變更日時와 委託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된 사항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울시立美術館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94年 그리고 95年 현재까지 觀覽人員과 觀覽料 月別 徵收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劉大運 委員님. 議事進行發言이시죠?

○劉大運 委員; 아니예요. 質疑가 한 1分밖에 안 걸릴 거예요, 아까 하려다가 너무 밀려서 못 했어요.

劉大運 委員입니다.

현재 서울시內에 4대문을 비롯해 가지고 文化財가 많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豫算을 투자해 가지고 補修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둘기와 각종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분비물로 인해서 금방 썩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려울 것은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책 좀 세워서 答辯을 해 주시고, 이 答辯은 서면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밥 그릇 찾기 얘기 조금 해야 되겠는데 밥 그릇 다 뺏겼어요. 名譽市民審査委員會에도 內務委員會에서 전부다 들어가 있고 世界化推進委員會에도 他 委員會 所屬委員들이 3名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觀光局長이나 서울市長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 議會 운영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권한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依賴公文이 갔을 거예요. 우리 局所官 어떤 어떤 委員會에 市議員으로서 委囑을 하고자 하는데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公文이 갔을 것입니다. 그 公文하고 추천되어서 온 사유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答辯을 해 주시고, 나머지 文化觀光局所管 各 審議委員會의 條例및 委員數를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鄭韓植 委員님.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風納土城 復元工事が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期間이 길게 잡혀 가지고 工事が 지연되고 있는지. 다음은 96年度 豫算에 왜 50億원밖에 豫算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다음은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 문제점 등등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順德;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세요? 金乙東 委員님.

○金乙東 委員; 부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口頭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는 데 대한 작년도 豫算 執行한 내역을 상세하게,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한 것을 상세하게 전부다 서류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료제출 바랍니다.

○委員長 安順德; 네, 李載震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補充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서울시 文化財를 제외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대행해서 管理, 補修한 文化財 內譯書, 文化財를 補修, 管理한 支出內譯書を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安順德;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一括質疑를 마치고 執行部の 충실한 答辯準備를 위하여 答辯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 아주 좋은 質問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關係公務員들께서는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서 내일 答辯하실 때 하나도 빠지 말고 소상히 심도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내일 10時에 續開하니까 그 전까지 委員님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文化觀光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는 이상으로 마치고 11月 25日 토요일 10時에 이 장소에서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監査日程을 마치고 散會를 선포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8時 08分 散會)

---

○出席監査委員

安順德 鄭韓植 孫 馥 金亨根  
徐在浣 梁東錡 劉大運 李善宰  
李載震 林鍾化 許光泰 金乙東  
魚潤慶 林靜枝 趙相勳

○專門委員

尹炳國

○被監査機關參席者

文化觀光局

局長 金禹奭

文化財課長 柳時源

(다음 페이지에 계속)